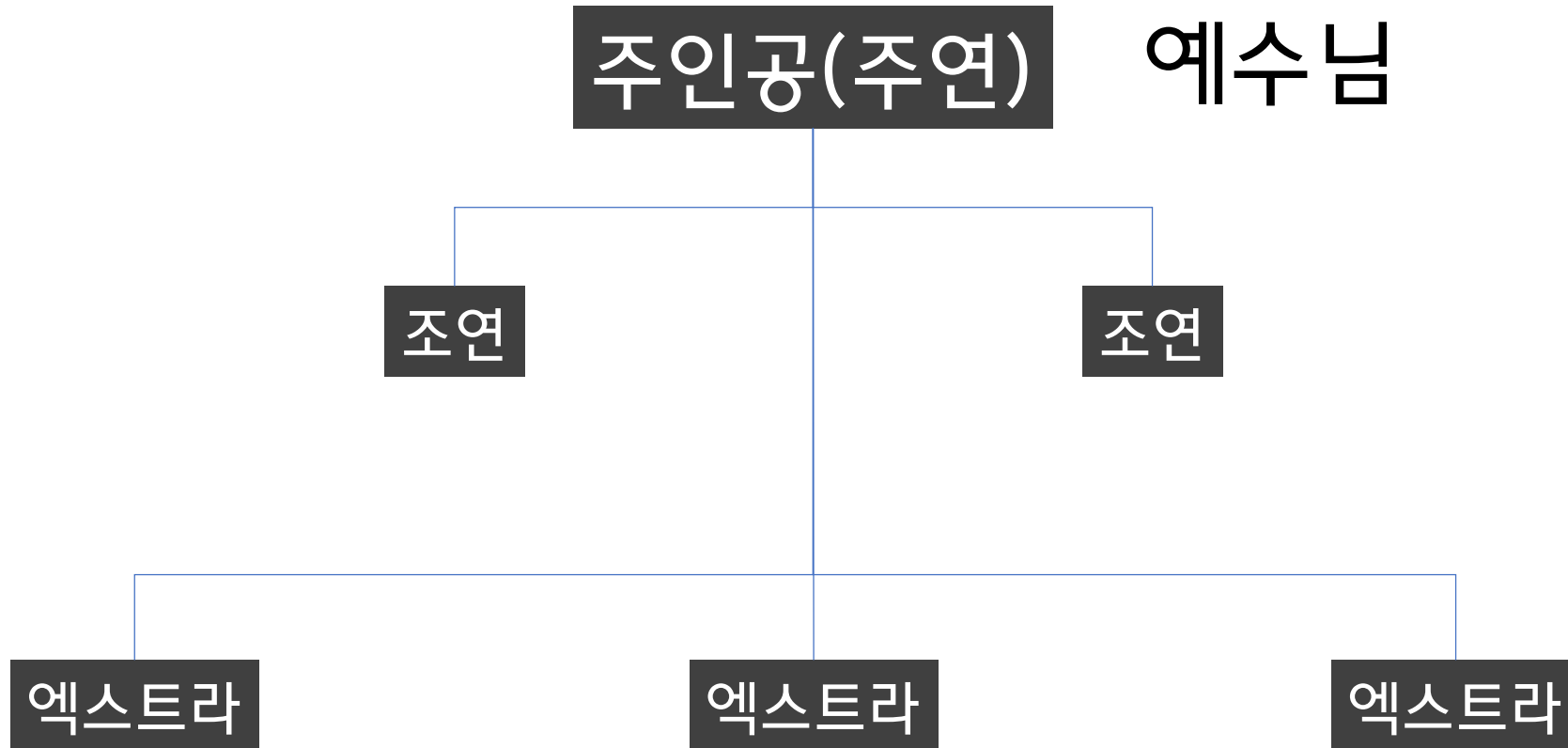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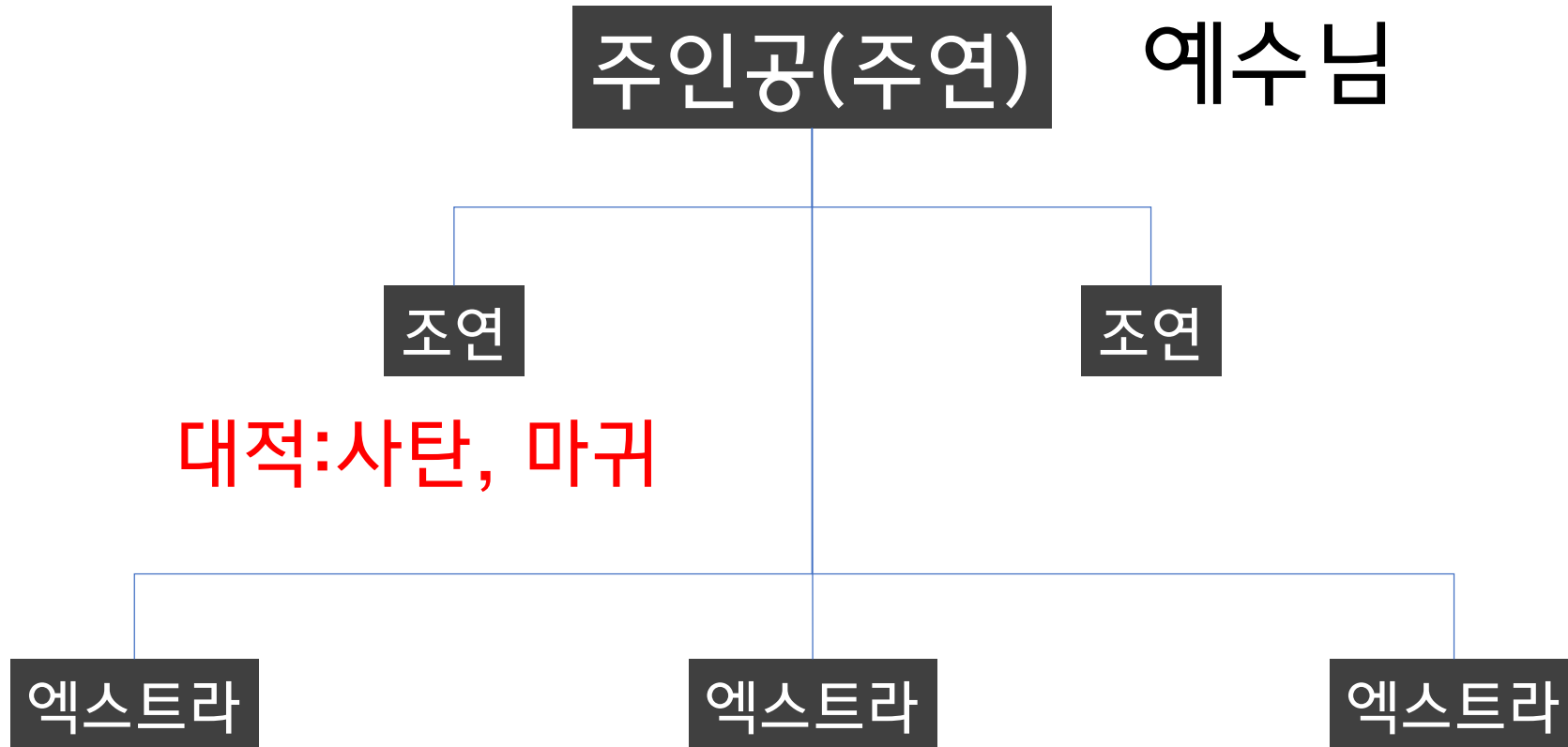
주일말씀

2025.06.29



31.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계시록 12장 7~9절

7.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새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8.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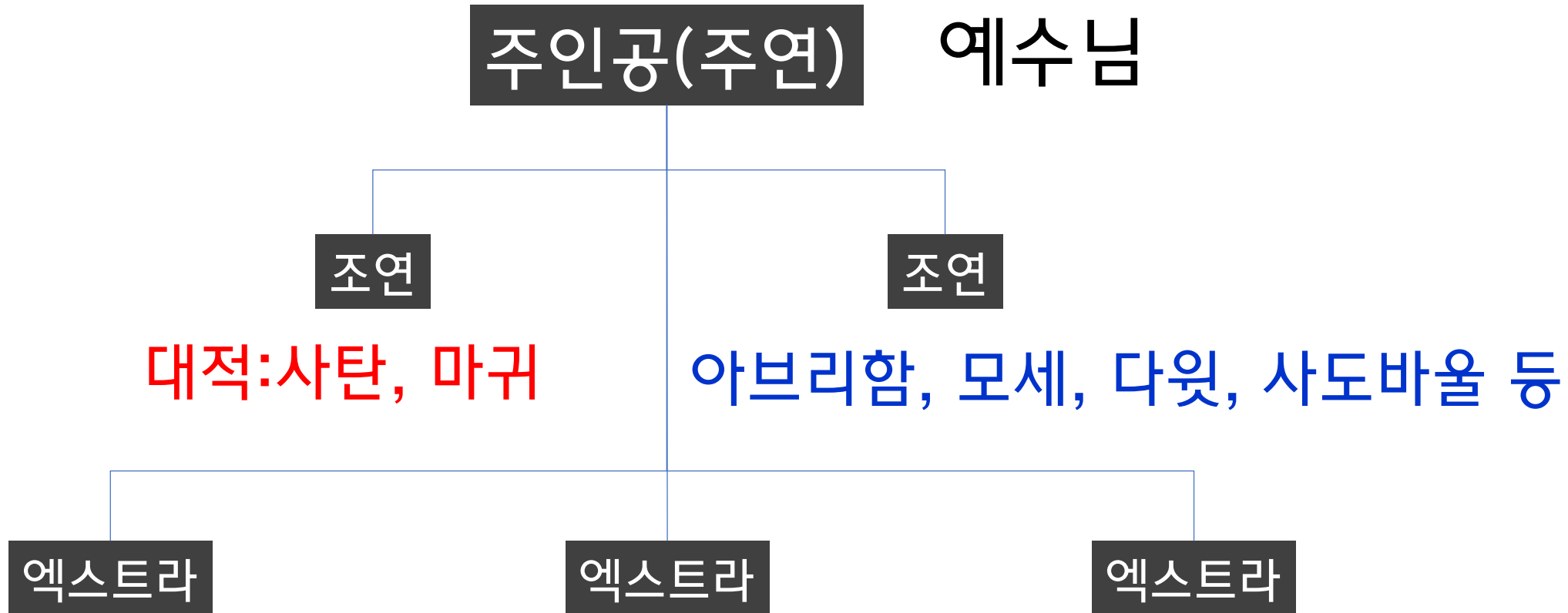
9.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꾀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당신은 엑스트라 인가요?

열왕기하 5장 1~6절

1.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환자더라
2.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으매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3.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4.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라 하니
5. 아람 왕이 이르되 같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십 달란트와 금 육천 개와 의복 열 벌을 가지고 가서
6.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렀으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 주소서 하였더라

어린 소녀의 부모의 역할

3.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15.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도로 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사도행전 23장 11~24절

바울의 조카



역대하 28장 1절 (새번역성경)

1. 아하스가 왕이 되었을 때에, 그는 스무 살이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열여섯 해 동안 다스렸다.

그러나 그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하지 않았다.

그는 그의 조상 다윗이 한 대로 하지 않았다.

역대하 28장 2~3절 (새번역성경)

2. 오히려 그는 이스라엘의 왕들이 걸어간 길을 걸어갔고,
심지어 바알 신상들을 부어 만들기까지 하였다.
3. '힌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향을 하고, 자기 아들을 불에 태워 제물로 바쳤다.
이것은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이 보는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민족들의
역겨운 풍속을 본받는 행위였다.
4. 그는 직접 산당과 언덕과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물을 잡아,
이방 신에게 제사를 지내고 분향하였다.

역대하 28장 5~6절 (새번역성경)

5. 그리하여 주 그의 하나님께서 그를 시리아(아람) 왕의 손에 넘기시니,
시리아 왕이 그를 치고, 그의 군대를 많이 사로잡아 다마스쿠스(다메섹)로
이끌고 갔다. 또 주님께서 그를 이스라엘 왕의 손에 넘기시니,
이스라엘 왕이 그를 크게 쳐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다.
6. 이스라엘의 르말리야의 아들 베가 왕이
유다에서 하루 동안에 용사들을 십이만 명이나 죽였다.
유다 사람들이 조상의 주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다.

역대하 28장 8절 (새번역성경)

8. 이스라엘 군대는 그들의 동족인 유다 사람들을,
아내들과 아이들까지 합쳐 무려 이십만 명이나 사로잡고,
물건도 많이 약탈하여 사마리아로 가져 갔다.

역대하 28장 9~11절 (새번역성경)

9. 사마리아에 오벳이라고 하는 주님의 예언자가 있었는데,
그가, 사마리아로 개선하는 군대를 마중하러 나가서, 그들을 보고 말하였다.
"주 당신들의 조상의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에게 진노하셔서,
그들을 당신들의 손에 붙이신 것은 사실이요.
하지만 당신이 살기가 등등하여 그들을 살육하고,
10. 그것으로 성이 차지 않아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남녀들까지
노예로 삼을 작정을 하고 있소.
당신들도 주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를 지었다는 것을 알아야 하오.
11. 당신들은 이제 내가 하는 말을 들으시오.
당신들이 잡아 온 이 포로들은 바로 당신들의 형제자매이니,
곧 풀어 주어 돌아가게 하시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주님께서 진노하셔서 당장 당신들을 벌하실 것이요."



역대하 28장 12~15절 (새번역성경)

12. 에브라임 자손의 지도자 네 사람,

곧 요하난의 아들 아사랴와 므실레못의 아들 베레갸와 살룸의 아들 여히스기야와
하들래의 아들 아마사가 역시 싸우고 개선하는 군대를 막아서서

13. 그들에게 말하였다. "이 포로들을 이리로 끌어들이지 마시오. 이런 일을 저질렀기 때문에,
우리가 모두 주님 앞에서 죄인이 되었소. 당신들은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더욱 많이 하였소.
우리의 허물이 이렇게 많아져서, 우리 이스라엘이 주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게 되었소."

14. 무장한 군인들이 이 말을 듣고, 포로와 전리품을 백성과 지도자들에게 넘겼다.

15. 사람들이 위의 네 지도자들에게, 포로를 돌보아 주도록 임무를 맡기니,

그 네 사람이 전리품을 풀어서, 헐벗은 이들을 입히고, 맨발로 걸어온 이들에게 신을 신기고,
먹을 것과 마실 것을 가져다 주고, 상처를 입은 이들에게는 기름을 발라 치료하여 주고,
환자들은 나귀에 태워 모두 종려나무 성 여리고로 데리고 가서, 그들의 친척에게 넘겨 주고,
사마리아로 되돌아왔다.

어린 소녀, 바울의 조카, 선지자 오벧 이 세사람의 공통점은?



성도님들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 인가요?

토요어린이학교 (새봄초등학교 부근 근린공원)



토요어린이학교 (새봄초등학교 부근 근린공원)



토요어린이학교 (함박마을 마리어린이공원)







율리아, 이의주 부부



달라진 토요학교 분위기



성도님들은
엑스트라 이신가요?

감사합니다.

일 상



나를 보내사 서게 하신 곳 가장 귀한 곳이 바로 이곳이라
내게 주신 곳 광야와 같아도 믿음과 소망 가지고 최선을 다하리

나의 작은 삶 주께 드릴 때 나의 삶을 통해 주 영광 받으리
내게 맡기신 가장 귀한 이곳 감사와 순종으로 오늘을 살리라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음을
내게 맡기신 이곳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뤄지길 원합니다

나의 작은 삶 주께 드릴 때 나의 삶을 통해 주 영광 받으리
내게 맡기신 가장 귀한 이곳 감사와 순종으로 오늘을 살리라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음을
내게 맡기신 이곳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뤄지길 원합니다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음을
내게 맡기신 이곳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뤄지길 원합니다.

나의 일상을 통해 주의 나라 이루소서